

01 교회소식

지혜와 키가 쑥쑥 자라가요~

주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쑥쑥 자라는 꿈나무들의 천국, 만민선교원을 소개한다.

02 생명의 말씀

주의 말씀은 등이요 빛이라

하나님 말씀 안에는 모든 문제의 해답과 방법론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행해 나가면 막힐 것이 없다.

03 기획특집

내 마음의 크기는?

하나님 나라의 분야 분야를 살필 줄 아는 넓고 큰마음을 이루기 위해 마음됨됨이 네 가지 유형을 통해 자신을 점검해 보자.

04 간증

송이꽃 같은 성결의 복음!

TBN 러시아 방송에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을 들은 뒤 범사에 축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안톤 성도 간증.

# 만민뉴스

제625호 2014년 3월 16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주님 사랑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진리의 가르침으로 착하고 지혜롭게 양육하는 만민선교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유아기는 아이들의 기본 인격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유아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제 아이를 어린이집에 두세 달 보내봤어요.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좋았지만 찬양을 부르던 아이가 세상 노래를 흥얼거리고 거친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깜짝 놀라 만민선교원에 보냈지요. 시댁과 친정에서는 거리가 너무 먼 집 근처 어린이집에 보내라고 하셨지만 이후로 아이가 놀고 말하는 것을 보시더니 다른 아이들과 달리 착하다고 칭찬하시며 만민선교원에 보내길 잘했다고 말씀하셔요.”

서울 상암동에 거주하는 기영순 집사의 말이다. 그녀는 매일 아침 아들(이수백, 5세)을 구로동 만민선교원까지 데려다 주느라 분주하면서도 마냥 즐겁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선교원 원아들을 항상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고 선생님들도 사랑으로 가르치니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5일, 우리 교회 부설 만민선교원에서는 제31회 입학식이 있었다. 이날 감사로 선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잠 22:6; 눅 2:52)라

는 말씀을 전했다. 이어 새로 취임한 원장 황재희 교육전도사와 담임교사들의 인사가 있었다.

1983년 12월 개원한 만민선교원은 ‘사랑’을 원훈으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사랑과 관심 속에 어린이들이 인성과 영성의 기초를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라는 표어 아래 진리의 말씀과 주의 교양으로 양육받은 만민선교원 원아들은 품행이 바르고 착하다. 세상 유행가를 부르지 않고 욕하지 않으며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한다.

무엇보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기 때문에 누구와 다투지 않고 친구들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아름답고 선한 마음을 만들어간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권능을 체험하며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로 성장하고 있다.

김소는 아들은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잉태의 축복을 받아 태어났으며 송주희, 김하민 아들은 아토피성 피부염을 치료받았다. 이 외에도 ARS(자동응답서비스) 환자가 도로 원아들은 감기에 걸리면 치료받고, 흑여 데이거나 상

처가 나면 무안단물을 뿌려 통증이 사라지는 체험을 한다.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니 질병이나 사고 걱정 없이 성장하지만, 흑여 아프다 해도 하나님 권능으로 치료받으니 믿음을 갖게 된다.

뿐만 아니라 매일 성전에 나와 주 안에서 공부하는 만민선교원 어린이들은 어려서부터 세계 선교를 향한 꿈과 비전이 크다. 우리 교회는 전 세계 1만여 자립력 교회와 함께 만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많은 주의 종과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미 만민선교원 졸업생들이 성장해 주의 종과 레위족, 찬양사역자 등 교회 각 분야에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그 꿈을 펼치고 있다.

한편, 만민선교원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예배를 시작으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정규 유치원 교육 과정 외에도 발표, 논술, 의사소통, 한자 배우기, 노래 배우기, 영어, 가베, 워십, 그룹 활동, 스토리텔링, 야외 체험학습 등이 있다. 후반기부터는 중국어, 발레, 구연동화 및 역할극 등 매주 1회 영재 양성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입학문의 02-864-3398).



당회장 이재록 목사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यो  
내 길에 빛이니아다”  
(시편 119:105)

## 주의 말씀은 등ियो 빛이라

어떠한 막힘이나 힘들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यो 내 길에 빛이 되어 행동하고 명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2. 주의 말씀으로 명철한 사람이 되려면

#### 1)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1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라고 했습니다.

발은 영적으로 세월의 흐름과 사람이 무엇을 추구해 가느냐를 비롯해 삶의 전반적인 과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았다’는 것은 악한 일을 도모하거나 동참하지 않고 오직 선한 일에 힘썼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발을 금하여 악한 길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정도를 걸었습니다. 그는 형들의 시기로 애굽 왕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 갔습니다. 그곳에서 진실하고 성실하니 가정 총무가 되어 주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됐지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해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죄와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하지요(창 39:7~10).

결국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처럼 악에서 떠나 오직 주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늘로부터 지혜와 명철이 오고 행동한 길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 2)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2절에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주의 규례’란 대대로 지키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들로서 일정한 규칙과 법과 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례를 대대로 지키는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한 의식을 그대로 따라 하라는 것은 아

니지요. 구약에서는 육신의 할례를 했지만 신약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하듯이 규례 역시 그 영적 의미를 계승해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의 규례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를 지키는 때에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에 명심하며 죄와 불의에서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규례를 지키는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방패가 되어 주시며 등과 빛이 되어 앞길을 내다 볼 수 있고 범사에 행동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 3) 주의 말씀이 꿀보다 달아 사모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꿀보다 더 달게 여기며 사모한 인물로 다니엘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 왕족으로 주전 605년 느부갓네살의 1차 침입 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융화정책으로 포로들 중에 왕궁에 들일만한 소년들을 뽑았는데 다니엘도 그중에 하나였지요.

어느 날 다니엘에게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3년 동안 왕이 지정해 준 진미와 포도주를 먹어야 하는데, 그중에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열흘 동안 채식과 물만 먹게 해 달라고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그 결과, 다니엘의 얼굴은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보다 더 아름답고 윤택해 결국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아도 됐습니다.

다니엘에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보다 더 달고 맛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채식과 물을 먹으며 하나님 앞에 부정하지 않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같이 달게 먹었기에 그 삶이 참으로 가치 있고 행복했습니다. 포로의 신분에서 대제국의 총리가 됐는가 하면,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으나 해를 입지 않고

오히려 살아 계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 4)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4절에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했습니다. 왜 주의 법도로 명철한 사람이 되면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옳고 그름과 선과 악, 생명과 사망이 구별되면 진리를 굽게 하고 멸망으로 이끄는 악이 너무 미워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든 거짓 행위란 무엇일까요?

첫째로, 거짓 행위에 해당되는 입술의 말입니다. 즉 악한 말, 망령된 말, 진실치 못한 말, 거스르는 말, 속이는 말, 패려한 말, 비방하는 말, 헛된 말, 원망하는 말 등이 있습니다.

둘째로, 남을 속이는 것 곧 부당 이익을 취하거나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른 것을 옳다 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등을 말합니다.

셋째로,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노력한 것 이상의 것을 얻으려 한다거나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 허황된 것을 바라는 것 등이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거짓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행위를 미워하라’는 것은 감정을 가지고 분을 내며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곧 악을 버리는 것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직접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죄는 미워하되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며, 고아와 과부 등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일 등이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주의 말씀을 자신의 발에 등과 길에 빛으로 삼는 명철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가로등이 없던 옛날에는 캄캄한 밤길을 가다가 넘어져 다치기도 하고 웅덩이에 빠져 목숨을 잃기도 했기에 항상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달빛이 환하게 비추면 안심하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지요.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 캄캄한 터널과 같은 막막한 날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 줄기 빛이 내려와 앞길을 환히 비추면 얼마나 용기백배하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 1. 주의 말씀을 내 발에 등과 내 길에 빛으로 삼는 명철한 사람

시편 119편 100절에 보면 “주의 법도를 지키므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나다” 했습니다. 명철이란 영적으로 길이 환히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은 길이 환히 보이므로 노인보다 명철함이 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노인은 인생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통해 사리를 밝히 분별할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자문을 구한다면 성공의 지름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긴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 안에는 모든 문제의 해답과 방법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발에 등ियो 길에 빛으로 삼는다면,

####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교회로 오시는 길



교회버스 (교회 차량 / ☎ 02) 818-7391~5)  
주일·공요철차: 각 지역별로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번 출구) /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 도보 10분

시내버스  
디지털로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  
5626,5630,5712,5714  
연희미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 651,5528  
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  
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  
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주일 저녁예배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9:00 PM
공요철차예배	11:00 PM
수요예배	11: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7: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8: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9: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4:00 PM
다니엘철차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3:00 PM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 나의 마음됨됨이는?

얼마나 그 마음을 넓혀서 사용하느냐 또는 어떤 일을 시켰을 때 얼마나 능력 있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마음됨됨이가 좋은 사람은 시킨 일뿐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포용력 있게 잘해낸다.  
 네 가지 유형을 통해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점검해 보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분야 분야를 살필 줄 아는 더 크고 넓은 마음을 이루기 바란다.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정도는 크게 차이가 난다.

## 자신의 할 바를 감당하기는커녕 악을 행하는 경우

가령, 부모가 집안 청소를 부탁했을 때 혹여 "동생도 있는데 왜 꼭 나만 시키나요?" 하면서 청소도 하지 않고, 오히려 동생을 때려 울린다면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이처럼 형으로서 책임감이나 의무감도 없고 상대를 배려할 줄도 모르며 자기 생각과 이론을 고집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이런 사람은 차라리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정도이다.  
 하나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당연히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인데도 내가 왜 이런 일까지 해야 하느냐고 불평한다. 더 나아가 여러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고 화평을 깬다. 또한 영혼을 사랑으로 갈무리하지 못해 잃어버리거나 실족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어찌하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탓, 환경 탓만 한다. "내가 처한 상황이 나빠서 못한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못한다." 하면서 늘 핑계만 대고 맡았던 사명까지 놓아 버리기도 한다.

## 자신이 해야 할 것만 감당하는 경우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는 확실하게 하지만, 주변을 돌아보거나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데까지는 마음을 쓰지 못한다. 가령, 부모가 휴지를 주우라 하면 휴지만 줍는다. 이 경우 순종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 부모의 기쁨이 될 수는 없다.  
 주 안에서 주어진 사명만 감당하는 경우가 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하고 다른 분야에는 마음을 쓰지 못한다. 이처럼 자신이 맡은 분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마음을 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드리지 못한다.  
 그러나 마음됨됨이가 좋은 사람은 어떤 분야에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서 직분을 맡았어도 그 분야만 감당하지 않는다. 비록 영혼 관리하는 직분이 아니더라도 기관장이나 구역장과 하나 되어 영혼들을 돌아본다든가 그 밖에 내가 도울 일이 없는지 두루두루 마음을 쓴다.  
 교회적인 행사가 있다 해도 마음을 넓게 쓰는 사람은 자신의 맡은 사명을 감당할 뿐 아니라, 그 외의 전반적인 분야들을 마음에 담고 아버지 하나님과 목자의 심정으로 돌아본다.  
 이런 마음이라면 기도할 때도 자신의 맡은 분야만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 다른 분야의 사명 맡은 분들을 위해 자신의 일처럼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서도 큰 기쁨이 되며 그만큼 천국의 상급도 크다.

## 반드시 해야 하는 것만 억지로 하는 경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지 않고 불평불만이 가득한 경우이다. 의무감 속에서 감당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부담을 준다. 이러한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이며 자신을 희생하고 남을 섬기는 데 인색하다. 그러나 마음이 크고 넓은 사람은 기도를 한다 해도 직분자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절함으로 기도한다.  
 맡은 분야에 부흥을 이루고자 할 때도 어떤 사람은 열매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에 억지로 심방하고 전도한다. 하지만 마음이 큰 사람은 영혼들을 자기 몸처럼 돌아보고 어찌하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한다. 이런 사람의 입에서는 항상 기쁨의 찬송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온다.  
 따라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이룰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마음됨됨이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 자신이 해야 할 것 이상으로 해내는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방안에 떨어진 휴지를 주우라고 말하면 휴지를 주을 뿐 아니라 휴지통까지 비우는 자녀가 있다. 나아가 구석구석까지 청소하는 자녀도 있다. 이 경우 부모의 기대 이상으로 행했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에 흡족함과 기쁨을 안겨 준다.  
 청소를 해도 자기 집 마당과 문 앞만 치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옆집 대문 앞까지 쓸어 주고 동네 골목길까지 청소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마음을 넉넉하게 쓰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 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다. 나아가 하나님 앞에 큰일을 감당하며 영광 돌릴 수 있다.  
 그러면 자신이 해야 할 것 이상으로 해내는 좋은 마음됨됨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마음을 성결케 하여 그릇됨을 갖추고 모든 분야에서 열정을 가지고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이뤄야 한다.  
 스테판 집사나 빌립 집사는 주의 종 못지않은 마음됨됨이로 성결되고 충성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녀의 모습을 이뤘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되니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었다.  
 과연 나의 마음됨됨이는 어떠한가? 얼마나 크고 넓은 마음을 이뤘는지 점검해 보며, 신속히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자신의 사명을 넘치게 감당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 바란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3 March  
2014.3.16~3.22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성공적 결혼관 2
- 온전한 십일조와 헌물 1-2
- 십자가의 도 21-24
- 빛 가운데 행할때의 축복
- 창세기 강해 76-80
- 천국 22-26 • 지옥 8-12
- 우리 삶의 등불 9-10

GCN TV 설교

- 성결을 위한 자세 1 (이수진목사)
- 주도 면밀한 삶 (이미영목사)
- 영의 세계 12 (이희선목사)
- 생명수4/나의 신앙생활 점검하기 (신동초목사)
- 악한 죄 / 탕자의 비유 3 (정구영목사)
- 축복 (김현진 교육전도사)
- 사랑, 변화의 원동력 (고경아 교육전도사)

예능 프로그램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18-19
- 찬양드러요 18-19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18-19
- 항기 18-19 • English 9-10
- 플로리스트 7-8
- 아름다운 예배 9-10
- 찬양과 경배 (3) 84-89, 93, 104

해외성회 프로그램

- 필리핀연합대성회 2

GCN 방송  
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1577-2073

# “성결의 복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는 에티오피아에서 태어나 18세 때 우크라이나로 유학을 왔습니다. 1998년 대학 졸업 후 친구의 전도로 주님을 영접했고, 2007년에는 안젤라와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인생에 대해 궁구하며 삶의 의미를 찾던 중 주님을 영접했으나 늘 영적으로 목말라 했습니다.

### 이재록 목사님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가니

2009년, 저희 부부는 기독교 채널을 통해 많은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 뜻을 밝히 알고자 위성 안테나까지 설치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BN 러시아 방송을 통해 이재록 목사님 설교를 시청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파스함, 이해와 배려의 선한 마음을 느끼며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주님 마음을 닮은 정도에 따라 천국 처소가 달라진다는 말씀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명쾌한 설교를 들으며 그토록 찾던 참 목자를 만났다는 사실에 매우 행복했지요. 또 목사님을 바라보며 설교를 듣는데, 그 선한 눈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 감동을 받았습니다.

당시 매일 밤 12시에 방송하는 이재록 목사님 설교는 저희 부부에게 생활의 큰 활력소가 됐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해서 잠을 자야 할 늦은 시간이지만 설렘으로 기다렸고, 소중한 말씀들을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설교 후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면서 성령의 불을 받기도 하고 피곤이 물러가는 체험도 했지요.

저희 부부는 더 많은 설교에 은혜를 받고자 컴퓨터를 구입해 이재록 목사님께서 시무하시는 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를 검색해 들어갔습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등 여러 언어로 번역된 사이트에는 러시아어도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믿음의 분량', '십자가의 도' 등 다양한 설교를 들을 수 있었지요. 또한 동영상, MP3 음성파일, 텍스트까지 있어서 프린트해 공부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뿐 아니라 뛰어난 기독교 문화 예술을 볼 수 있는 찬양과 공연, 하나님 권능을 체험한 사람들의 수많은 간증을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 영혼이 잘돼 가는 만큼 범사가 잘되는 축복이 임하고

이재록 목사님께서 제 마음을 변화시켰고, 영육 간에 축복받는 길을 알려 주셨습니다. 제가 가죽제품과 패션 잡화를 판매하는 상점을 개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일입니다. 바로 10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 상점이 오픈한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며 불쾌해했고 그 상점이 문 닫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록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이런 경우를 예로 들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상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없으니 선한 기도를 올려



안톤 성도 (우크라이나 하르코프)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는 명쾌했고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토록 찾던 참 목자를 만났다는 사실에 매우 행복했습니다.”

야 한다고 하셨지요. 저는 매우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를 올렸습니다. 이후로 그 가게도 잘 되길 바라며 좋은 관계를 맺었지요.

또한 성경에 '하라, 지키라, 하지 말라, 버리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지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제 삶에 적용하니 신기하게도 변화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직원이 잘못하면 그만두게 했는데 이제는 달라졌지요.

먼저 저를 돌아보고 감사하며 제 마음을 넓히고 선과 사랑의 마음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직원이 잘못하면 책망하기보다는 사랑으로 대했고, 선물을 주는 등 선으로 대하고자 노력했지요. 또한 마음속에 있는 악이 싫었기에 금식기도를 올리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삶을 살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업터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세 개의 상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조도 100~200달러에서 500~1000달러로 늘어났지요. 할렐루야!

### 꿈에도 그리던 만민중앙교회에 방문하여 성도로 등록해

저희 부부는 이재록 목사님을 뵈기 위해 수년 동안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마침내 지난 2월 12일부터 8박 9일 일정으로 꿈에도 그리던 만민중앙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아쉽게도 이재록 목사님께서 산상기도 중이라 직접 뵈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동을 주셨습니다. 주일 대예배와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 등 각종 예배를 비롯해 만민기도원 집회와 매일 밤 올리는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했지요.

만민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매우 정갈한 모습이었고, 예배나 기도하는 모든 분야에 정성을 다했으며, 천국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무엇보다 성결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철야 기도회 시 만민기도원 이복남 원장님이 저희 부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성령의 불이 임하고 마음에 평안과 함께 큰 감동이 임했지요.

지난 2월 19일 수요일에 저희 부부는 만민중앙교회 양 떼로 등록했습니다. 많은 성도님의 환영을 받으며 행복했지요. 짧은 일정이었지만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몸은 우크라이나에 있지만 만민중앙교회 양 떼로서 모든 삶에 함께하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 즐겁고 든든합니다.

앞으로 더욱 주님 마음을 닮으며 우크라이나 영혼들에게 성결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죄악으로 관영한 이 마지막 때에 참 목자를 만나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국내 지교회, 지정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로 103,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해운대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174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동 1181 302호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울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1/3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197번지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진상가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5527-2073

- 말양민교회 경남 말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도로 529-32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로22길 27,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10호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순환대로 637, 2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2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5583-4697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7127-2073
- 결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천동 698-12 ☎032569-3835, 010-3430-3312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서울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우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32528-3830, 010-3430-331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7127-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종리천로 126-7 ☎031635-9103, 010-7103-4097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